



그림=주홍

▲전남대 미술학과, 중앙대 대학원 회화과 석사 ▲제3회광주미술상, 제2회광주비엔날레 공훈상 ▲개인전 12차례 개최

동화

또야또 아줌마

정인순

“이건 닭볶음도 아니고 닭국도 아니여.”

“또야, 또.” 형에게 궁시렁 댄 후로

아줌마는 또야씨가 되었다.

동 쪽 하늘이 해님을 밀어 올 리기도 전, 아빠는 택배회사 집하장에서 넘치지 않을 만큼 짐을 싣고 돌아왔다. 허리를 잔뜩 웅크린 채 언 손을 비비며 방으로 들어온 아빠 입에서는 허연 입김이 한 움큼씩 뿜어져 나왔다. 그때까지도 밤사이 머리에 지어 놓은 까치 집을 털어내지 못한 내게 눈길만 한 번 쓱 주고는 밥상을 끌어당겼다. 아침밥을 먹는 내내 말이 없던 아빠는 문득 생각난 듯 입을 열었다. “민우, 옷 한 벌 사다줘요.”

아빠는 또야씨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손질을 해가며 내 옷 이야기를 했다. 시루에서 물만 얻어먹고도 콩나물이 쭉쭉 자라듯 국만 얻어먹은 내 몸이 쭉쭉 뻗는 느낌이 요즘에 자주 들기는 했다. 졸어드는 소꿉단을 볼 때마다 서운한 마음도 들었다. 옷에게 서운한 건지, 내 마음도 모르고 자꾸만 커버리는 몸에게 서운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야씨는 고개를 가웃거리며 더듬 더듬 우리말을 했다. “미우, 옷시요?”

또야씨는 내가 입고 있는 겹옷을 만지며 아빠에게 확인을 했다. 아빠는 고개를 끄덕여 확인시켜 주고는 집 앞에 주차해 둔 차문을 열었다.

아빠는 택배회사에서 배달 일을 한다. 예전에 이삿짐을 하던 사장님이 택배회사를 차리면서 이삿짐 아저씨에서 택배 아저씨가 된 것이다. 오늘날 짐 싣고 가면 내일 새벽에나 돌아 오실 것이다. 비탈길에 세워 둔 차자가 구불구불한 언덕배기 달동네 길을 내려가고 있었다.

“또야씨” 진짜 이름은 호아센이다. 나와 형은 또야씨가 온 후로 하루도 거르지 않고 국을 먹는다. 물론 아빠도. 국은 국이러서 먹고 뉘음은 물이 많이 넣어서 볶음도 아니고 국도 아닌 상태로 먹는 것이다. 또야씨가 하는 닭볶음은 언제나 닭볶음국이 되어 버린다. 닭과 감자가 국물 속에서 동동 떠다니는. 학교에서 공짜로 먹는 급식까지 국이 나오는 날은 뉘음에 물이 차서 끓렁거리는 소리가 들릴 지경이다.

“이건 닭볶음도 아니고 닭국도 아니여.”

“또야, 또.”

형에게 궁시렁 댄 후로 아줌마는 또야씨가 되었다. 형과 나 사이에서만, 학교에서 돌아와, 대학생 누나들이 자원 봉사하는 공부방까지 다녀왔다. 하지만 학교 정문 앞에 있는 장미아파트에서 청소 일을 하는 또야씨가 오려면 아직도 멀었다.

엄마가 아빠와 함께 이삿짐 나르는 일을 했을 때 나는 그냥 나왔다. 하지만 엄마가 돌아가시고 또야씨가 우리 집에 온 뒤로 나는 그냥 내가 아니라 ‘베트남 아지메’랑 사는 이민우가 돼 버렸다.

내가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를 등지고 비탈에 서 있는 우리 동네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민우가 ‘베트남 아지메’에 속하게 된 것이다.

주머니에 넣어둔 껌이를 찾으려는데, 아침에 벗어두고 간 옷이 보이지 않았다. 세탁기 안을 확인해 봤지만 빨래는 하나도 없었다. 건조대에도 다른 옷들만 걸려있었다.

“형아, 내 옷 못 봤어?”

“무슨 옷?”

“있잖아, 내 생일날 엄마가 사준 옷 말이야.”

“작아졌다고 어제 새 옷 사 줬다면 서, 버린 거 아니야?”

나는 형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비탈길을 달리기 시작했다. 동네 입구에 있는 헌옷 수거함이 눈에 들어왔다. 어제까지 넘칠 듯, 헌 옷가지며 이불들이 너털거려던 수거함이 썰렁해 보였다. 아니나 다를까 노란 수거함은 텅 비어 있었다. 수거함을 끼고 이리 저리 한참을 서성거렸지만 헛수고였다.

“형아, 내 옷 못 봤어?”

“무슨 옷?”

“내 생일날 엄마가 사준 옷 말이야.”

“이런 된장 할 또야씨, 가만 두지 않겠어!”

주먹을 불끈 쥐자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다. 그동안 엄마가 사주신 물건들이 하나 둘 사라져 가는 게 서운하고 속상했는데 엄마와 보낸 마지막 생일에 받은 옷까지 없어지다니..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있었지만 마음속 소용돌이는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날이 어둡해 질 때까지 공터에 있는 샌드백을 때려쳤다.

저녁 밥상에는 역시나 국이 올라와 있었다. 돼지고기 주물럭국이, 씩씩대며 밥 옆에 있는 주물럭국을 개수대에 쏟아 버렸다. 또야씨는 놀란 표정을 했다.

“내 내놔요!”

“미우, 옷시요?”

새로 사준 옷을 가리키며 또야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했다.

“이 옷 말고 내 옷이요, 내 옷! 우리

엄마가 생일 선물로 사 준 그 옷 말이예요.”

“..”

또야씨 눈을 입 대신에 많은 말을 하고 있었다.

우리말도 못하는 주제에 남의 물건은 왜 함부로 버리는지 또야씨에게 화가 치밀었다.

“가 버려! 우리말도 못하면서 왜 남의 집에 와서 맘대로 내 옷은 버리고 난리야. 가 버리란 말이예요, 가.”

또야씨는 찢찢매며 상기된 얼굴을 한 채 부엌을 서성거렸다.

세면대 물을 세게 틀어놓고 거품 세수를 해도 화가 가라앉지 않았다. 한참 물을 뒤집어쓰다가 반짝하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손이 먼저 세면대 위에 있는 반지를 움켜쥐었다. 주먹 안에 갇혀 꼼짝 못하는 반지를 꼭 쥐고 밖으로 나왔다. 엄마가 돌아가신 게 또야씨 때 문이란 엉뚱한 생각이 들었다. 또야씨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2년이나 지나서 우리집에 왔는데 말이다. 비탈을 한참 내려가다 냄새 나는 하수구 쪽으로 반지를 힘껏 던져버렸다.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잊고 있던 아지트 쪽으로 가고 있었다.

장가는 가을 때 짝나무가 털어낸 낙엽들과 부엌 먼지를 잔뜩 뒤집어쓰고 비탈진 언덕에서 언제나처럼 동네를 굽어보고 있었다. 장가를 보자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반가우면서도 살짝 어색했다. 삼식사와 사이가 나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장가도 찾지 않게 되었다. 그사이 장가는 군데군데 벗겨진 은색 페인트가 부식되면서 검버섯 같아져서 눈이 들어오지 않게 되었다. 장가는 버려진 은색 페인트가 부식되면서 검버섯 같아져서 눈이 들어오지 않게 되었다.

장가가 보이지 않을 때가 되었다. 발로 툭 차면서 알은 척을 했다. 장가는 덜렁거리는 문짝을 슬며시 열어 주며 웃어가는 척 받아주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아늑한 기분이 들면서 마음이 한결 나아졌다. 운전석 등받이를 최대한 높였다. 소란하게 떠이던 불빛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까만 하늘이 눈 속으로 가득 들어왔다. 하늘은 차츰 자기를 보여줄 것이다. 맨 처음 별빛을 보여주고, 그 다음엔 바람도 보여주고, 기분 좋은 날은 꼬리 달린 별뿔별도 가끔 보여주었다.

(15면으로 계속)

“가 버려! 우리말도 못하면서

왜 남의 집에 와서 맘대로

내 옷은 버리고 난리야.”

의·치의학/약학

전문대학원 MDPass 의(醫)학원

진학전문교육기관 1월 2일

서울유명학원 전문강사진 전격출강!

Grid of instructor profiles with names and titles: 김경민, 황재현, 배은정, 박종기, 안이수, 서원호.

Logos and text for '전남대, 조선대, 전북대' and 'MDPass'.

MDPass 의학원

문의 263-5453, 전呼 255-9119

서울고시학원 514-4560